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본격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체육계·정관계 등 57명 위원 구성
내년 9월5일 개막...슬로건 ‘평화의 울림’·마스코트 ‘에피’



내년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 세계인의양궁 축제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준비가 본격화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 세계양궁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위원회 정관계, 위원장·임원 선임, 사업 계획·예산안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 창립총회에서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강기정 광주시장을 선임하고 체육계·경제계·정관계 등 각계각층 대표 57명을 조직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날 ▲대회 초청장 발송 ▲경기장 시스템 구축 ▲수송·숙박 등 대회 운영 관련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경기장 조성, 경기인력 운영, 대회 홍보 등에 예산 40억8천200만원을 의결했다.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세계양궁연맹, 대한양궁협회, 대한장애인양궁협회, 광주시양궁협회, 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 지역사회 등과 협력을 체계적인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대회 마스코트 ‘에피(E-Pea)’를 공개했다. ‘E-Pea’는 대회 슬로건 ‘Echo of Peace’에 착안해 명명됐다. 에피는 ‘평화의 수호자’

를 상징하며 슬로건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과 함께 전 세계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조직위원회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광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사무처를 설치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일반 선수와 장애인 선수 경기가 모두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양궁선수권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이 한 도시에서 동시 개최되는 것은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2019년 네덜란드 스헤르토크텐보스에 이어 광주가 세 번째다. 강기정 조직위원장은 “광주는 양궁의 도시로 고대 마한에서 나온 활과 화살은 광주의 DNA를 보여주고 서향순·장용호·주현정·기보배·최미선·안산 선수 등 수많은 메달리스트로 DNA를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번 대회는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의 역사·정신·미래를 함께 보여주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광주도 만날 수 있다”며 “광주를 세계 속에 드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내년 9월5일부터 12일까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내년 9월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변은진 기자



성공개최 다짐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조직위원 등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尹 정조준’ 공조본, 피의자 출석 요구...검찰도 2차 소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적시...직접 조사 임박·체포영장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 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검찰도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했다. ▶관련기사 2·3·4·6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 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로 인해 전달을 못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비해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급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가 적시됐다. 검찰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출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출석

현재, 탄핵심판 27일 시작...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수사 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현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

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 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현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위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이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을 통해 정형식(63·사법

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헌법재판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현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연합뉴스

전남 서부권 리더를 모십니다

‘제2기 전남 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 개설 원우 모집

목포 등 서부권 활동 리더 대상 고품격 강의 선포
내년 4월 개강...인적네트워크·다양한 원우회 활동

광주매일신문이 목포 등 전남 서부권 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제2기 전남 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함께 할 원우를 모집합니다. 전남 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는 전남 서부권에서 활동하는 기업체 CEO와 임직원, 각 단체의 관리자 및 열정적인 지식 탐구를 지향하는 사업가와 청년세대 등이 참여하는 학습·교류의 장입니다.

- 모집 인원: 00명
- 교육 기간: 2025년 4월 개강-10월 종강(연 12회 강좌)
- 지원 자격: 기업 경영자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 강의 시간: 격주 목요일 오후 7-9시(6시부터 식사)
- 강의 장소: 신안비치호텔
- 모집 기간: 2025년 3월 말까지
-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07-2074

전라남도 주 청년 정책

전남 청년이라면 이권 기본 코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4년간 최대 2,000만원
근속장려금 지급(청년 1,500, 기업 500)

지원대상
·청년: 전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
·기업: 전년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

지원내용
채용인건비(월 최대92만원), 인센티브(정규직 전환시 기업 200만원, 청년 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청년: 전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
·기업: 전년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지원내용
문화복지카드 1인당 연 25만원 지원

지원대상
도내 2년 이상 거주 중인 19세 ~ 28세 청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2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49세 이하 청년부부(쌍에 1명)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월 10만원) 적립 시, 동일금액 3년간 매칭 지원

지원대상
도내 18 ~ 45세 청년 노동자, 사업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호남 청년 아카데미

지원내용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 청년 역량 및 리더십 강화교육, 지역활동 및 네트워킹 지원

지원대상
도내 18 ~ 49세 청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내용
청년공동체 활동비(6백만원) 및 네트워킹 등 교류·협력 지원

지원대상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팀, 법인 또는 단체)